인간은 이 세상에서 정신과 물질을 동시에 지닌 유일한 존재 로 여겨진다. 정신은 과연 물질, 곧 육체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일까? ㉠ 컴퓨터와 같은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는 정신을 가질 수 없는가? 오래전부터 정신을 비물리적 대상으로 간주하는 사람이 많았고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육체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화학적 조성을 띠지만 정신은 비물리적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이원론이다. 이에 견줘 동일론은 정신은 육체, 그중에서 두뇌의 물리적 상태와 동일한 것으로 존재하지, 육체와 독립되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무엇인가가 독립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모든 가능성을 들여다보며 “여기도 없군. 저기도 없네.” 하며 철저히 점검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것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주장들을 조목조목 반박해 나가면 된다. 그런 식으로 동일론은 이원론을 반박한다.

요즘에야 동물도 정신(마음)을 가진다고 생각하지만 이 글에서는 우선 인간만을 정신을 가진 존재로 상정하고 있다. 여기서는 일원론이라는 대신 동일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동일론은 일원론 중에서도 유물론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 처럼 보인다. 동일론(유물론적 일원론)은 몸은 존재할지 모르나 정신은 개념일 뿐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 이원론은 정신이 몸과 별개로 존재하며 물리적으로 환원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무언가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에 대해 논쟁할 때 입증 책임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쪽에 있다. 왜냐하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쪽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대상에 대해 논증을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도 정신이 몸과 별개로 존재하느냐에 대해서 입증책임은 이원론자들에게 존재한다. 이원론자들은 정신이 별개로 존재하는 이유는 제시해야 할 것이고, 동일론자들은 이원론자들의 주장에 반박함으로서 일원론을 주장할 수 있다.

원자나 엑스선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것을 가정함으로써 다양한 현상들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 이원론자는 정신도 ⓐ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가정해야만 설명할 수 있는 특성들이 있다고 주장한다. 라이프니츠는 만일 X와 Y가 동일 하다면 이들이 똑같은 특성을 갖는다는‘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를 제시했는데, 어떠한 물리적 대상도 갖지 못할 특성을 정신이 갖는다면, 이 원리에 따라 정신은 물리적 대상과는 다를 것이다.

증명에는 직접 증명법과 간접 증명법이 있다. 정신이 별개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는다면 이는 직접 증명법일 테지만 그러한 이유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다면 정신이 존재한다는 쪽을 지지하는 증거 혹은 근거들을 찾는 것으로 충분할까? 아마도 이러한 증거를 가져오면 동일론자들은 이렇게 답할 것이다. “그래, 너가 가져온 증거에 따라서 정신이 존재할 수도 있겠네. 하지만 여전히 존재 안 할수도 있는거 아니야?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아직도 너에게 있어” 따라서 이원론자들은 ‘정신이 별개로 존재할수 있다’가 아닌 ‘정신이 별개로 존재 한다’를 증명해야 하고 즉 정신이 반드시 별개로 존재해야만 하는 이유를 찾으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서 이원론자들은 간접 증명법인 귀류를 택한다.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만약 동일론적인 관점을 택해서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면, 이는 정신이 반드시 별개로 존재해야만 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 동일론자들은 다시 이 사례를 동일론적인 관점으로 설명하려 할 것이고 동일론자와 이원론자의 논증은 이러한 증명-반박의 반복일 것이다.

사실 이 글에서의 예시인 원자나 엑스선은 약간 문제가 있는 예시이다. 왜 문제가 있는지 다음과 같은 대화를 살펴보자. A: 신은 존재해 B: 왜? 신은 볼 수 없잖아 A: 너 공기를 볼 수 있어? B: 아니 A: 그렇다면 공기는 존재하지 않아? B: 그건 아니지 A: 그렇다면 볼 수 없으니 존재하지 않는다는 너의 주장은 틀렸어. B: ??

원자나 엑스선이나 공기는 모두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없다 뿐이지 기술의 도움을 받아 물리적으로 확인 가능한 대상들인 반면 신이나 정신은 그렇지 않다. 아마도 원자나 엑스선 대신 허수와 같은 예시를 드는 것이 더 적절했을지도 모른다. 허수는 그 이름처럼 실제 세계에서 인지할 수 없는 수 개념이지만 허수의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이 무수히 많다.

라이프니츠의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는 다음과 같다.

X와 Y가 같다면 똑같은 특성을 갖는다.

* A와 똑 같은 특성을 갖는 대상이 없다면 A와 같은 대상은 존재하지 않을것이다

따라서 정신과 똑같은 특성을 갖는 물리적 대상이 없다면, 정신과 같은 물리적 대상은 존재하지 않고 정신은 물리적으로 환원되지 않는 독립된 존재일 것이다.

대표적 이원론자인 데카르트는 그런 특성으로 언어와 수학적 추론을 제시한다. 그는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가 사람처럼 언어를 사용하거나 수학적인 추론을 해낼 수는 없으리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그 힘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약하다. 먼저 컴퓨터 언어라는 개념은 이제 상식적인 것이 되었다. 컴퓨터 언어는 인간이 쓰는 언어에 비해서 구조와 내용의 면에서 단순하지만 그 차이라 하는 것은 종류의 차이가 아니라 정도의 차이이다. 한편 데카르트의 저술이 나타난 이래로 수세기 동안 여러 학자들은 수학적 추론의 일반적 원리들을 이럭저럭 찾아낼 수 있게 되었고, 컴퓨터 기술자들은 그런 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데카르트를 깜짝 놀라게 했을 법한 ⓑ기계를 만들어 내게 되었다. 독립 적인 정신을 가정하지 않고서도 언어와 수학적 추론을 설 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이와 같이 더 복잡한 것을 끌어들이지 않고 무언가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을 끌어들이지 말라는 ‘단순성의 원리’에 의해 독립적인 정신을 가정할 필요가 없다

데카르트는 정신의 특성으로 언어와 수학적 추론을 제시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 “언어와 수학적 추론이 가능한 물리적 대상이 없다면 정신과 같은 물리적 대상은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정신은 물리적으로 환원되지 않는 독립된 존재일 것이다.” 하지만 언어와 수학적 추론을 분석해 이를 사용하는 기계(물리적 대상)가 세상에 나왔고 데카르트의 주장은 힘을 잃게 되었다.

여기서 짤막 문제: ‘ⓑ기계’의 존재 이후 라이프니츠의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는 힘을 잃었다.

는 맞는 보기일까요? 정답은 땡입니다. 데카르트는 라이프니츠의 논리적 구조를 가져와 그 구조에 정신과 언어, 수학적 추론 등을 대입했습니다. 기계의 존재는 데카르트의 주장 중 전제인 정신과 똑 같은 특성을 갖는 물리적 대상이 없다는 사실을 반박했을 뿐이지 그 논리 구조 자체를 논파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계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라이프니츠의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단순성의 원리는 앞서 입증 책임과도 관련이 있는데, 무언가가 존재하는 것을 증명하려 할 때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아도 무언가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만 하면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데카르트의 사례에서 언어와 수학적 추론으로 정신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해도, 정신이라는 개념 없이도 언어와 수학적 추론을 설명할 수 있다면 정신이 별개로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은 여전히 이원론자에게 존재한다.

데카르트는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로 이원론을 지지하는 또 다른 논증으로, 육체의 존재는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지만 정신은 의심할 수 없다는 것을 든다. 의심하기 위해서는 내 정신이 ⓒ 또렷하게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육체와 정신 중 하나는 의심 가능하다는 특성을 갖지만 다른 하나는 갖지 않으므로 그 둘은 ⓓ 동일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온다.

데카르트는 이번에는 정신만이 가질 수 있는 특성으로 언어와 수학적 능력이 아니라 의심가능성을 든다.

여기서는 데카르트의 명언 Cogito ergo sum(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을 전제로 하고 있고 이를 다룬지문이 2014 예비시행에 있으니 이를 살펴보자.

-----------------------------------------------------------------------------------------------------------------------

상식적으로는 자신에게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그대로 세계가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회의론에서는 그 보고 듣고느끼는 세계가 모두 환상일지도 모른다는 가정을 옹호한다. 가장 널리 알려진 회의론은 근세 철학의 창시자인 데카르트에 의해 제시되었는데, 그는 의심이 전혀 불가능한 확실한 지식을찾기 위해 체계적으로 의심하는 방법을 만들었다. 즉 의심할수 있는 이유를 더 이상 찾을 수 없을 때까지 의심할 수 있는것은 모두 의심해 보는 것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명제 A에 대해서 회의한다’를 이해고자 할 때 가장 오해하곤 하는 것이 이를 ‘~A임을 밝히자’ 로 이해하는 것이다. 회의한다 라는 말의 뜻은 확실하지 않음을 밝히고자 함이지 확실하게 옳지 않음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즉, 이를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A가 확실하다는 주장에 금을 가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회의론자들은 A가 확실하지 않다까지 가지 않더라도 A확실하지 않을 수 있음만을 보여주려 한다. 따라서 이 때, 이들에게 A에 대한 대안을 요구하거나, ~A의 근거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가 의심한 첫 번째 범주의 지식은 감각에 의해 생긴 지식이다. 휴대 전화가 없는데도 벨소리가 들릴 때가 있는 것처럼, 감각은 우리를 종종 속이므로 감각적인 증거를 토대로 생긴 지식은 믿을 수 없다. 그렇지만 내가 지금 의자에 앉아 있다는 사실까지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 이에 대해서도 데카르트는 꿈에서 똑같은 종류의 감각을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나는 의자에 앉아 있다고 느낄지도 모르지만 사실 나는 침대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감각적인 증거를 토대로 생긴 지식은 믿을 수 없다.

감각적 지식만이 지식의 전부는 아니다. 예컨대 우리의 지식 중 수학의 지식은 감각에 의존하지 않으므로 데카르트의 의심에서 무사히 벗어날지 모른다. 내가 깨어 있을 때나 꿈속에서나 2 더하기 3은 5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데카르트는 수학의 지식 마저도 의심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악마가 존재하여 사실은 2 더하기 3은 4인데 우리가 2에 3을 더할 때마다 5인 것처럼 속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악마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모순이 되지 않는다면 상상하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

철학적인 맥락에서 감각에 의해 생긴 지식을 우리는 경험적 지식(=후험적 지식, a posteriori) 이라고 하고 감각에 의존하지 않는, 즉 경험에 의존하지 않는 지식을 선험적 지식 (a priori) 라고 한다. 데카르트는 경험적 지식과 선험적 지식 모두 조작될 수 있음을 근거로 이를 의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주의: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조작된다고 가정해도 이것이 내적으로 모순되지 않는다면 그 가능성이 아무리 낮다 해도 그러한 주장을 할 수 있는 셈이고 따라서 회의론자의 목적은 달성된다.)

그러나 데카르트는 아무리 의심을 해도 의심하는 사람의 존재에 관한 의심은 가능하지 않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만약 그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악마도 그를 속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가 의심하고 있다면 그는 존재함에 틀림없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그 자신의 존재는 그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확실한 것이다.

앞서 경험적 지식과 선험적 지식에 대한 의심과 의심하는 사람의 존재에 관한 의심은 무엇이 다를까? 전자는 내적으로 모순되지 않는 반면 후자는 내적으로 모순된다. 후자의 모순성에 대한 근거로 데카르트는 의심하고 있는 사람의 존재가 담보되지 않으면 의심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즉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라는 말은 ‘나는 의심한다’ 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다. 하 지 만….

그런데 데카르트가 찾은 이러한 존재의 확실성의 토대는 그리 튼튼한 것 같지 않다. 그의 결론대로 생각하는 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생각하는 ‘나’가 항상 같은 ‘나’라는 보장이 있을까? 생각하는 ‘나’가 존재한다고 하면 지금 생각하는 ‘나’와 5분 전에 생각하던 ‘나’는 똑같은 사람으로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의 생각은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지만 5분 전에도 ‘지금의 나’가 생각했다는 것이 확실하지 않으므로, 지금 생각하는 ‘나’와 5분 전에 생각하던 ‘나’가 동일하지 않을수도 있다.

데카르트의 체계적 의심에 따르면 절대적으로 확실한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의 나의 존재일 뿐이다. 그러나 좀 더 철저히 의심하면 영속적인 나의 존재는 보장되지 않는다. 그는 회의를 시작했지만 철저한 회의론자 가 되지는 못했다.

철저한 회의론자들은 의심하는 사람의 존재의 순간과 의심의 순간이 불일치할 수 있음을 근거로 삼아 데카르트의 이론을 비판한다. 재밌는 점은 이 철저한 회의론자들 역시 불일치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불일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내적으로 모순만 없다면 데카르트의 주장이 완전하지 않음을 주장한다는 점이다. 이는 데카르트의 회의론에 대한 회의론이라 할 수 있겠고 따라서 저자는 이를 철저한 회의론자라고 기술했다.

19. 위 글의 집필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특정 학자가 의심하는 명제가 다른 학자들에게는 확실한 명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②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체계화된 이론을 정립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③ 상식적인 개념을 제시한 후 그 개념을 분석하여 대립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④ 어떤 학자가 주장한 이론을 소개하고 그 이론이 지니는 한계를 지적하기 위해 (답)

⑤ 대립하는 두 이론의 장점만을 취하여 하나의 새로운 이론을 정립하기 위해

20. 위 글의 ‘데카르트’와 ‘철저한 회의론자’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 기 >

ㄱ. 꿈 속의 지식 중에는 감각적 지식이 아닌 것도 있다.

ㄴ. 어떤 지식을 상상만으로 의심할 수 있다면 그 지식은 확실하지 않다.

ㄷ. 의심하기 위해서는 그 시점에서 의심하는 주체가 필요하다.

ㄹ.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의심할 수 있다.

ㅁ. 영속적인 나의 존재를 의심할 수 있는 이유를 찾을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ㄱ, ㄴ, ㄷ(답)

④ ㄱ, ㄹ, ㅁ

⑤ ㄴ, ㄹ, ㅁ

데카르트와 철저한 회의론자는 모두 경험적 지식과 선험적 지식은 의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ㄱ) 그리고 의심할 수 있다면 확실하지 않다고 생각한다(ㄴ). 하지만 의심하는 사람의 존재에 관한 의심에는 이견이 있다. 데카르트는 의심하는 사람의 존재는 의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철저한 회의론자는 의심을 위해 의심하는 사람의 존재는 필요하지만 이 존재가 영속적인지에 대해서는 의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ㄷ),(ㅁ) 따라서 데카르트는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의심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철저한 회의론자는 이 마저도 의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ㄹ)

21.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상황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나의 뇌가 몸에서 분리되어 양분이 공급되는 큰 통 안에 둥둥 떠 있고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상황을 상상해 보자. ‘통 속의 뇌’에서는 나의 경험을 모두 컴퓨터가 조작해 내고 있다. 가령 나는 의자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컴퓨터가 만들어 낸 환상이다.

① ‘통 속의 뇌’와 같은 상황은 우리가 체계적으로 의심한 끝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겠군.

② ‘통 속의 뇌’의 세계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실재하지 않을 수도 있겠어.

③ ‘통 속의 뇌’를 조작하는 컴퓨터는 데카르트가 말한 ‘악마’에 해당하겠네.

④ ‘통 속의 뇌’의 세계에서는 2 더하기 3이 4이면서 동시에 5이겠어. (답)

⑤ 우리도 그런 ‘통 속의 뇌’가 아니라고 확신할 수 없겠군.

회의론에서 중요한 것은 무언가를 회의하고자 할 때 내적으로 모순되지 않는 주장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4번 선지에서처럼 2+4이 4이면서 동시에 5인 상황은 내적으로 모순된 상황이고 따라서 그러한 상황은 상상할 수 없다.

--------------------------------------------------------------------------------------------------------------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자. 데카르트에 따르면 정신의 특성인 의심할 수 없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 물리적 대상은 존재하지 않고 (왜냐하면 모든 물리적 대상은 의심할 수 있기 때문) 따라서 정신과 같은 물리적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정신은 물리적으로 환원되지 않은 독립된 존재이다.

이 논증을 평가하기 위해 사실은 같은 사람인 정약용과 다산을 생각 해 보자. 󰡔목민심서󰡕를 정약용이 썼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더라도 다산이 썼다는 것은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다. 다산이 썼어도 쓰지 않았다고 의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정약용과 다산이 ⓔ 동일한 존재가 아닌 것은 아니다.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는,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특성이 의심이나 생각 같은 것을 포함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대망의 하이라이트 문단… 지금까지는 이해가 잘 되다가도 이 문단을 읽으면 읭? 할 지도 모른다. 심지어 나도 처음 읽고 뭔소리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이런 글이 나와도 당황하거나 무작정 여러 번 읽지 말고 멈춰서 생각해보자. 앞의 맥락에서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와야 할까? 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잘 이해가 안되더라도 이 논증을 평가하기 위해 라고 문단이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 데카르트의 이원론 주장의 두 번째 논증에 대한 얘기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는,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특성이 의심이나 생각 같은 것을 포함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로 끝나는 것으로 보아, 이 논증에 무언가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수능장에서 정 이해가 안된다면, 이 정도로만 이해해도 된다.

“이 글은 동일론과 이원론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입증 책임은 이원론쪽에 있고 동일론은 그를 반박하기만 하면 되는구나. 여기서 이원론자로 데카르트가 등장하고 데카르트는 라이프니츠의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를 기반으로 두 가지 논증을 제시하는데, 이 두 가지 모두 문제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 글은 동일론자의 입장에서 쓰여졌구나” 정도로만 이해해도 된다.”

만약 독해력이 좋다면 이 정도까지 읽어낼 수도 있다. 데카르트는 라이프니츠의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이론을 활용해 대상이 같은 특성을 지닌 것이 없다면 이 대상은 다른 무엇과도 다르다고 주장한다. 같은 특성을 데카르트의 첫 번째 논증은 언어나 수학이 정신만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근거로 삼는데 이는 시간이 지나고 과학자들이 컴퓨터 등을 만들어내면서 그 근거가 약해졌다. 데카르트의 두 번째 논증은 의심할 수 없음을 마음의 유일한 특성으로 내세우는데,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를 이곳에 적용하는데에 문제가 있나보다…? 하는 정도의 인상을 가질 수 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10번도 넘게 100점 맞을 수 있는 수준이다! 사실 수능장에서 이정도 이해한다면 단언코상위 1%라고 말할 수 있다. 사실 마지막 문단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회의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위의 2014 예비시행 지문에서 이를 다뤘다!

자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마지막 문단의 내용을 이해해 보자. 마지막 문단은 다음과 같은 논증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사실: 정약용은 다산과 동일인물이고 정약용은 목민심서를 썼다.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를 통해 증명하고자 하는 것은 ‘정약용(대상 1)과 다산(대상 2) 가 동일한 지 알아보고자 한다’이다.

정약용(대상 1) 은 ‘목민심서를 썼다는 것을 의심할 수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보자). {이러한 표현을 쓴 이유는 이 글에서 목민심서를 정약용이 썼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더라도~ 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산(대상 2)은 ‘목민심서를 썼다’라는 것을 의심할 수 있다. (이렇게 의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예비시행에서는 논리적으로라는 말 대신 내적으로 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모순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 따라서 다산은 ‘목민심서를 썼다는 것을 의심할 수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약용과 다산은 다르다.

이 논증의 결과는 매우 우스꽝스러운데, 저자는 이러한 우스꽝스러운 결과가 나온 이유는 데카르트가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를 너무나 확장해서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첫 번째 논증에서처럼 수학적 능력이나 언어의 경우는 이 원리를 적용해서 대상이 동일한지 그리고 따라서 이것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지를 논증할 수 있었으나 두 번째 논증에서는 그 특성이 ‘의심할 수 있음’ 과 같은 애매모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에 논증 자체에 문제가 있다.

요약하자면, 데카르트의 첫 번째 논증은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 자체는 유효하지만 그에 사용되는 특성들이 마음에 유일한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대상에도 존재할 수 있어 반박되고, 두 번째 논증은 부적절한 특성을 이용해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를 과하게 적용했기에 그의 적용 자체를 문제삼음으로서 반박할 수 있다.

5. 독서의 목적을 고려하여 윗글을 추천하고자 할 때,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분에게 추천합니다.

① 감정을 정화하기 위해 감동적인 경험을 소개하는 글을 읽으려는

②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타인의 일상을 담은 글을 읽으려는

③ 학문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기술에 적용된 원리를 설명하는 글을 읽으려는

④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사회 현상의 원인을 분석한 글을 읽으려는

⑤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인간과 사물의 본질을 논쟁적으로 다룬 글을 읽으려는 (답)

6.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현실에서 발생한 일이라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의심은 할 수 있다. (답)

② 이원론은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에도 정신이 독립적으로 있다고 본다.

③ 원자나 엑스선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물리적 대상이 아니다.

④ 라이프니츠는 물리적 대상이 정신과 똑같은 특성을 갖더라도 그 둘은 다르다고 보았다.

⑤ 데카르트는 언어를 사용하거나 수학적 추론을 할 수 있는 기계가 출현하리라고 예상했다

-> 2번 선지가 헷갈릴 수는 있지만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 란 이 본문에서 나온 컴퓨터와 같은 대상을 의미하며 이원론자는 정신을 비물리적 대상으로 보기에 이러한 체계에는 정신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주의: 이 보기를 ‘이원론은 정신은 물리적인 체계와 독립적으로 있다고 본다.’ 로 자의적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완전히’ 라는 단어를 빼먹어서도 안되고 본문에 분명히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의 예시도 들었다.

7. ㉠에 대한 동일론자의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컴퓨터와 같은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는 정신을 가질 수 없는가?

1. 기술이 발달하면 컴퓨터도 인간과 같은 정신을 가질 것이다. (답)

② 기술이 발달하면 컴퓨터는 인간과 달리 정신을 가질 것이다.

③ 기술이 발달하면 컴퓨터는 인간과 종류가 다른 정신을 가질 것이다.

④ 기술이 발달하더라도 컴퓨터는 인간과 달리 정신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⑤ 기술이 발달하더라도 컴퓨터도 인간과 같이 정신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이 문제는 앞서 강조했던 ‘개념’과 ‘존재’를 구분해야만 하는 문제이다. 동일론은 정신의 개념을 인정하지만 정신이라는 것이 물리적인 세계와 독립해서 존재한다는 생각을 거부할 뿐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풀 때, “동일론은 정신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인간이 정신을 가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겠지? 컴퓨터는 물론이고…그렇다면 답은 5번!” 이렇게 풀면 절대로 안된다. 동일론 역시 인간이 정신을 가진다고 생각하지만, 이 정신 역시 물리적으로 환원될 수 있다고 생각할 뿐이다. 즉 동일론은 정신은 일종의 개념(혹은 물리적인 대상에 붙여진 이름) 에 불과하지 물리적이지 않은 무언가가 아니라고 주장할 뿐이다. 따라서 답은 1번이다.

8.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가) 악령의 존재를 가정할 필요 없이 병원체의 존재를 가정함으로써 감염병의 발생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

(나) ‘하늘에 태양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없지만, ‘왼손은 있다’고 생각하면서 ‘오른손은 사라졌다’고 생각할 수 있다.

① (가)에서는 단순성의 원리에 의해 악령을 끌어들일 필요가 없는 것이겠군.

② (가)에서 ‘악령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악령 이 존재할 모든 가능성을 들여다볼 필요는 없겠군.

③ (가)에서 병원체의 존재가 감염병을 가장 잘 설명해 주기 때문에 병원체가 존재한다고 판단하겠군.

④ (나)에서 왼손과 오른손은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에 따라 동일한 대상이 아니겠군. (답)

⑤ (나)에서 생각의 가능성에 차이가 있는 까닭은 논리적으로 모순인 것과 아닌 것의 차이 때문이겠군.

1. 단순성의 원리란 더 간단한 설명이 존재한다면 이를 채택한다는 것이다. 악령의 존재를 가정하지 않고 병원체의 존재만으로써 감염병의 발생을 설명할 수 있다면 악령의 존재를 가정할 필요가 없다.
2. 무언가가 존재한다의 입증 책임은 존재하는 쪽에 있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쪽은 존재한다는 쪽의 주장을 반박하기만 하면 된다.
3. 두 번째 문단에 따라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병원체를 가정함으로써 감염병이라는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하기 때문에 병원체를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4. 왼손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음’ 이라는 특성을, 오른손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음’ 이라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에 따라) 왼손과 오른손이 동일한 대상이 아니라는 생각은 데카르트의 두 번째 논증과 같은 오류를 범한다. 이는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특성이 생각할 수 있음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를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5. ‘태양이 존재하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리적으로 (내적으로) 모순이기에 생각할 수 없지만 ‘왼손은 있다고 생각하면서 오른손은 사라졌다’는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기에 생각할 수 있다. 이 5번 보기의 태양 얘기는 2014 지문에서 2+3이 4이면서 5인… 이 생각나지 않나요? 기출의 중요성…

확실히 지문에서 이해하기 제일 어려운 부분을 가지고 3점을 내네요. 그 부분을 물고늘어져서 이해하지 못한 학생들은 풀기 힘들도록…

9. [A]에 드러난 동일론의 주장에 대해 이원론이 비판한다고 할 때, 비판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인간과 같은 수준의 언어를 사용하는 기계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그 뜻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② 인간과 같은 수준의 언어를 사용하는 기계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행동적인 측면만 따라할 뿐이고 사랑이나 두려움 같은 감성적 측면은 따라할 수 없다.

③ 수학적 추론을 하는 기계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기계가 정신을 가지지 못한다고 말하면서도 수학적 추론을 한다는 것은 성립할 수 없다.

④ 수학적 추론을 하는 기계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프로그램에 따라 작동하는 것에 불과하지 선택에 따른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

⑤ 수학적 추론을 하는 기계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비행 시뮬레이션이 실제 비행의 모방에 불과한 것처럼 기계의 수학적 추론은 인간의 수학적 추론을 모방한 것에 불과하다.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이원론이 동일론에게 하는 비판이라는 점이다. 선지는 모두 A는데, B다 의 구성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볼 때 봐야 할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A에 동일론의 주장이, B에 이원론의 주장이 있는지 2: B가 A를 반박하는지, 즉 B와 A의 논리적 연결성이 적절한지. 보통 허접한 문제면 A에 이원론을 집어넣는 식으로 오답을 구성하나, 어려운 문제라면 A는 동일론의, B는 이원론의 주장이지만 두 주장이 각기 다른 주제에 대해 얘기를 하거나 혹은 B가 A를 반박하지 못하거나 하는 식으로 오답 선지를 구성하곤 한다.

1,2,4,5 A는 동일론의 주장이고 B는 이원론의 주장이며 B는 A에 대한 반박으로 적절하다.

3은 A는 동일론의 주장이다. 하지만 B는 이원론의 주장이 아니다. 왜냐하면 ‘기계가 정신을 가지지 못한다고 말하면서도’는 일원론에서 주장하는 바가 아니다. 오히려 동일론은 기계도 정신을 가지고 정신은 물리적으로 환원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동일론자는 기계가 정신을 가지고 있고 수학적 추론을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보기 3번의 B (기계가 정신을 가지지 못한다고 말하면서도 수학적 추론을 한다는 것은 성립할 수 없다.) 뒤에 무엇이 따라와야 하겠는가? “따라서 기계는 정신을 가진다” 가 와야 할 것이다. 이는 누구의 주장인가? 동일론자의 주장이다!